

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21:20~

다름, 이상 (우리들의 대화)

- 참여작가

김자영 작가

정유하 작가

염선빈 작가

이계월 작가

이민경 작가(10월 초대 작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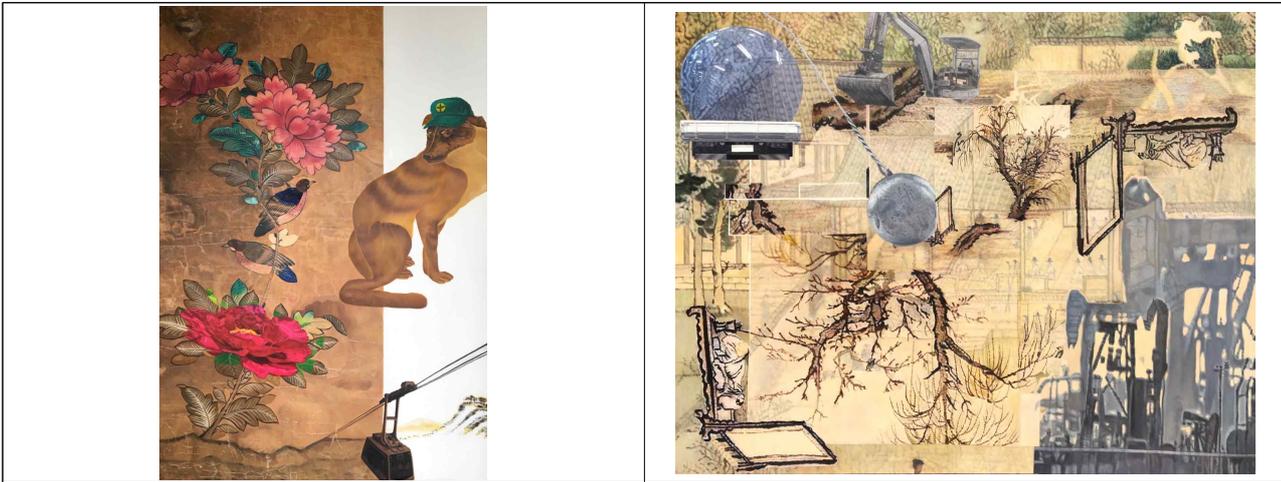
- 정유하 작가

나는 다른 삶을 사는 타인의 이야기들을 만화 형식을 차용해 그린다.

풍경을 뒤로 한채 누군가를 바라보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.

첫 번째 작품으로 처음으로 콘서트를 가게 된 20살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그렸다.

\* 김자영 작가님의 작품을 보며 나눈 대화



- 정유하 작가

김자영 작가님은 모던한 스타일의 작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는데, 민화의 요소와 사회적인 메시지들이 있어 새로웠고, 과거와 현재가 공통된 지향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.

- 이계월 작가

김자영 작가의 작품을 보니 호기심이 생겼다. 과거의 이미지와 현재의 이미지의 조화가 좋다. 풍속화와 현대적인 이미지의 이질적인 조합과 입체와 평면이 섞인 구성이 재미있다고 느껴진다.

- 이민경 작가

그림을 보는 순간 할 말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.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풍자적인 요소들을 보는 재미와 작가가 할 말이 많이 보인다고 느껴졌다.

- 김자영 작가

2017년 유화 작품이다. 모티브는 민화, 한국화에서 볼 수 있는 요소를 가져왔다. 그때나 지금이나 썩은 것은 썩어 있다(웃음)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다보니 레이어라는 요소로 과거와 현재를 담았다.

#민속놀이, #새마을 운동, #풍자, #대비, #호기심, #정치, #레이어, #커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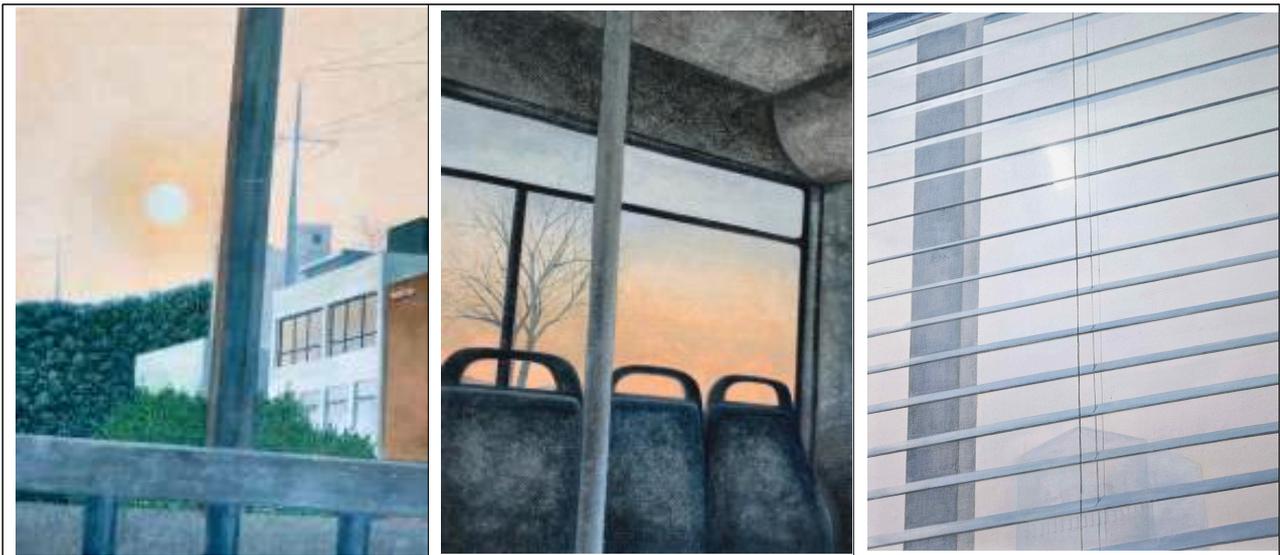
\* 이계월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다.



- 김자영 작가  
순환, 반복, 지움, 생성,
- 정유하 작가  
음미, 음식, 추억
- 염선빈 작가  
바람, 건조, 거품, 방향
- 이민경 작가  
혼돈스러운, 정리
- 이계월 작가

나는 바람을 좋아한다. 이 작업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, 그것을 지운다는 것은 뭘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. 기존의 틀을 깨면 새로운 것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최근 불교의 순환과 윤회, 그리고 양자역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.

**\* 염선빈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다.**



- 김자영 작가  
편안함, 출근, 퇴근, 고요함, 하루의 마감
- 정유하 작가  
궁금함, 호기심, 일상, 허무, 열망
- 이계월 작가  
석양, 일상, 단면, 시선, 쓸쓸함, 시선이 가지고 있는 힘
- 이민경 작가  
일상, 프레임, 뒤통수
- 염선빈 작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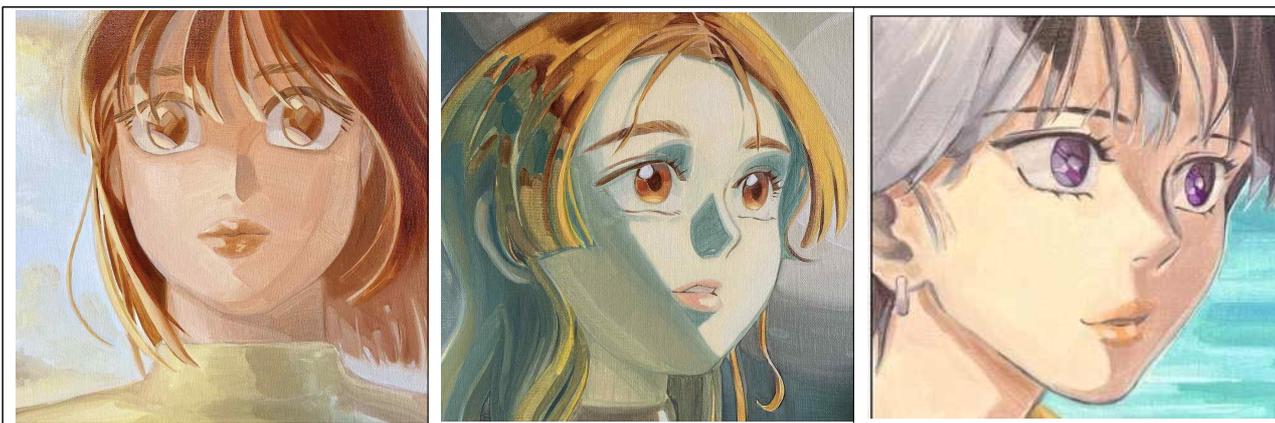
공통적으로 그림 안에 창문이나 공간을 구획하는 벽이 등장하는데, 나는 실내에서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풍경도 자본주의에 의해 계급화 되어있다는 생각을 가지고, 보편적인 청년이 바라보는 풍경을 담아내고 있다.

\* 이민경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다.



- 정유하 작가  
난해, 공중부양, 단순함, 중의적,
- 이계월 작가  
궁금,
- 염선빈 작가  
운동, 팽창, 흐르다, 자수, 나무질감,
- 김자영 작가  
한계, 노동, 첩첩산중
- 이민경 작가  
장지를 1센치 정도의 띠로 만들어 접어 쌓아올리는 작업이다. 종이를 부조로 활용한 것이다.

\* 정유하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다.



- 김자영 작가  
희망, 반전, 반짝임
- 이계월 작가  
눈, 자화상, 마음, 빛, 에너지
- 염선빈 작가  
희망, 벽차다, 차오름, 소녀, 젊음, 봄
- 이민경 작가

연극, 연출, 외면,

- 정유하 작가

근본적으로 연극의 한 장면처럼 담아내려고 한다. 다른 삶을 사는 누군가를 상상하며 그린다. 내가 그리는 인물들이 어디선가 존재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.

\* 화상회의

